

[종합·해설]

광주시 '유급인턴보좌관제' 동의 후폭풍

의회에 밀리고 시민은 반발... '진퇴양난'

광주시가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됐다. 시의회의 막판 밀어붙이기에 밀려 법규에도 없는 '유급인턴보좌관제' 도입에 동의했지만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주축인 것이다.

광주시가 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 예산 증액 요구에 동의한 것을 놓고 '밀실 결정'이라며 시민들의 비난과 예산 집행을 거부했을 경우 의회와의 관계 악화라는 사면초가(四面楚歌) 처지가 된 것이다.

행자부 제재 피할 수 없을 듯

예초 도입을 만류한 행정자치부의 제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또 싸울 수 없어서'=5일 오전 간부회의를 끝낸 광주시청의 분위기는 착잡했다. 전날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요구한 1억7천만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금' 추가 계상에 동의한 것을 두고 '굴욕'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였다.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금'은 표현만 다를 뿐, 그동안 광주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해 온 '지방의원 유급인턴보좌관' 도입에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인턴제는 사실상 유급보좌관으로 유급보좌관 위법성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고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열악한 재정현상의 의회 운영비용의 추가 지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시의회는 4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갑자기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금'을 상정해, 광주시에 동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단 한차례도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등 공개적인 의정단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또 싸울 수 없지 않느냐"며 "의회에서 밀어붙여 하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굴욕' 있거나=이 외에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증에 당초 상임위에서 깎았다가 '부활'한 예산은 모두 15건 13억9천500만원(일반회

계)으로 상당부분 '경제 살리기'에 관계된 것들이었다.

광주시가 인턴보좌관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예산이 깎일 수도 있었음을 추론하게 하는 대목이다.

후환 두려워 '굴욕'?

◇시의회에 쓰린 따가운 시선=사실상의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행정자치부, 타 차체단체의 시선은 따갑다.

행정자치부에선 광주시에 재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등 인근 지자체에선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고 앞서 가면 어떻게 하란 것인가'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의회가 오는 8일 본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인턴보좌관제'에 따른 예산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추미애, 민주세력 통합 3원칙 제시

"한나라 향별정책 동조 호남구애는 잘못"

추미애 전 의원은 5일 민주세력 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통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기득권 포기 ▲전국정당화 ▲민주세력의 결집을 제시했다.

추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대에서 가진 부산대 10.16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초청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실패와 분단으로 인한 민주세력의 분열, 비생산적인 정치투쟁이 개혁역량을 소진시켰다"면서 "민주세력 통합을 위하여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용광로에 들어가야 하며 이렇게 되면 도로 민주당이나 우리당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정계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통합을 통해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선 특강에서 "2002년 대선에서 호남지역이 기득권을 포기 했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노 대통령은 '호남을 떠나서 영남표를 더 얻겠다'는 정치공략적 발상을 제로 썸 게임을 하는 바람에 호남에서 외연받고, 영남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회창씨 4년만에 당 행사 참석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5일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당 행사에 참석했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나라포럼' 초청 특강 자리였다. 이 전 총재는 그동안 각종 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들을 간간이 지원하기는 했지만 당 주관 행사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처음이다. 그는 "당이 호남에 가서 향별정책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김대중 주지"에 아첨해 호남에서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역주의에 편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계복귀설이 나돌고 있는 이 전 총재는 이날도 현 정권 실정을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당이 호남에 가서 향별정책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김대중 주지"에 아첨해 호남에서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역주의에 편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 두말하면 잔소리"

베시바우 주한 미대사, 뉴라이트와 비공개 회동

국내 뉴라이트 진영과 알렉산더 베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5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미동맹·북핵·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미동맹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

한미동맹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

북한에 대한 시험일 뿐 아니라 나머지 5

개국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하다"며

반드시 성과있는 회답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내년 6월 미 의회가 행정부

에 부여한 신속협상권(TPA)이 종료되거나 전에 FTA가 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의 호혜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베시바우 대사는

"차기 6차회담의 성과 유무는 북

한에 대한 시험일 뿐 아니라 나머지 5

개국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하다"며

또 우리 정부가 잘도 가고 있는 부분은 어떻

게 바꿔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이날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미 현안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하지 못할 민감한 내용이 간담회에서 오가는 게 아니라는 추측이 제기된 것이다.

뉴라이트 진영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자주 시험에 오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해왔다.

베시바우 대사도 북한 핵실험 후에는 "개성공단 사업을 새로운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알렉산더 베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5일 오전 뉴라이트 싱크넷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오늘 광주 '비전투어'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6일 광주를 방문한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에 이어 복지 부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비전투어'의 일환이다. 문민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광평동 종합버스터 미널 앞 전용버스 안에서 지역 복지 전문가 10여명과 '복지 향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www.lawbig.co.kr
채무/압류/추심 동산경매/신용불량 해방!!
빛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여기 길이 있습니다.
파산면책/개인회생 사건들을 전담하는 광주 전남 최대의 회생법무사 사무소에서 채무를 탕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원 1577-8682, 011-625-6097
광주·전남 어디서나 1577 법률LLU로
참 고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영상자료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2기]
 • 개강일시 : 2006. 12. 28(목) 09:30
 • 모집기간 : 2006. 12. 5 ~ 28(일)까지
 • 수업기간 : 2006. 12. 28 ~ 2007. 4월(4개월 15주)
 • 수강료 : 210,000
 ■ 모집과정인원: 1단계과정 오전반, 오후반 각 20명(선착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 TEL(062) 950-3584, 3585, HP.011-614-4160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56 명
KPA회원 2006년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령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① 개별화된 1/1 원화제
② 2개월 종합반·온전이론+온전기론+기초영어 수강
③ 기밀 무료 등록금(회원제)
④ 전형성적, 평가, 학생, 회사원, 아르바이트 일정작성
⑤ 주부, 노여인 등
⑥ 일시 : 매주 월요일 15:00부터, 매주 금요일 18:00부터 (11 월요일에는 매일 실시)
⑦ 장소 : 회민법무사 사무실
평택시 동구 금남로51가 우리은행사거리 금호종합금융 8층
전화번호 : 011-625-6097
문자번호 : 010-4236-3112
e-mail : kjimyoung@kpa.or.kr

***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 법 조태업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 사 오수평 교수	영 어 오순아 교수	영 어 김지선 교수

한국경찰학원 www.kjimyoung.co.kr

한국경찰학원 www.kjimyoung.co.kr

공무원 합격 절호의 기회!!
교정직 특채
★ 2007년 700여명 모집예상!! ★
영어없이 두과목만 응시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2006년 교정직 특별한 학과(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합격노하우로 아래들을 학습의 길로邁進합니다.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www.kjimyoung.co.kr

대학편입 마무리과정(6주)
개설과목: 영어/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인학
1차개강: 12월 1일, 2차개강: 12월 4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 개강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 1월 예정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8088

영역별 노트필기식 특수비법으로 초4부터 중3과정까지 12개월 완성!
수학을 못하는 것은 100% 선생님 책임!!

문제만 끄적 끄적 푸는 수학공부 절대 시키지 마라!

**초등학교때 수학우등생이 왜?
중학교에 가서 수학을 포기할까요?**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학원, 과외를 안 시켜서?
책이 나빠서? 선생님이 성적이 없어서?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 100% 개념원리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순서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문제풀이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 고적고적 딛만 썼기 때문입니다.
- 초등학교때부터 노트필기식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남 쪽집게 강사 오창영 선생의 노트필기식 특수비법으로 배워야 합니다.
귀신도 모르는 **논술수학만의 특수비법**으로 수학 일등 만들어 줘 벼릅시다!

※ 지금 전화주시면 오창영선생의 놀라운 특수비법 강의의 자세한 가이드북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창영<논술수학> www.nsmath.com 광주교육본부 062) 376-3663 북구교육센터 062) 574-4422